

“작은 마음이지만 뜻있는 곳에 써주세요”

교리경시대회 특별상 박윤진 양 보시행 화제

“작은 마음이지만 뜻 있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홍수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태국의 또래 친구들을 위해 자신이 받은 상금 전액을 선포 내놓은 ‘아름다운 여고생’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윤진(18, 서울 신곡2)양이다. 박윤진 양은 지난 21일 태국

3회 전국청소년교리경시대회에서 특별상과 입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 100만원을 이번엔 보시하게 된 것이다.

박 양은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현조스님) 개원부터 인연을 맺고 매주 일요일 청소년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신심 깊은 불자다. 또 나눔에도 관심이 많아 복지시설에서 매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양의 가족은 일요일마다 국제선센터로 총출동해 신행활동을 한다. 아버지 박수근(50, 서울 신정동)씨와 어머니 김희옥(49)씨는 “딸이 처음에 복지시설에 봉사한다고 했을 때 걱정도 했었다”며 “지금은 도리어 딸에게 나눔을 배우고 있다”고 대견해했다.

이날 상금을 전달받은 본지 주간 장석준님은 “박 양의 아름다운 마음과 귀한 생각에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팔만대장경처럼 1000년이 지나도 향기를 내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도록 축원하겠다”며 해인사 팔만대장경 모형판본을 선물했다. 종립학교인 동국대에 진학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인 박 양은 태국의 친구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지는 박윤진 양의 기부금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24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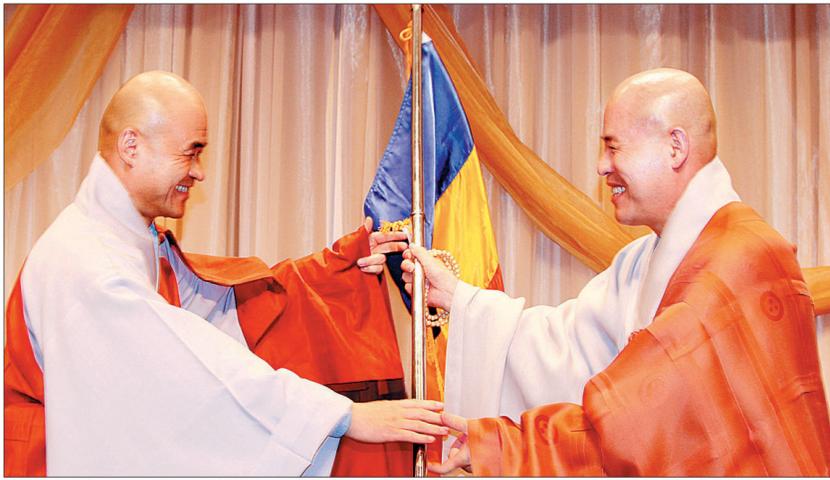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홍수로 고통 받는 태국 친구들 위해 상금전액 본지 기탁

홍수사태 피해복구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 직접 본지를 찾아왔다. 박 양은 “교리경시대회에 응시해 상을 받았지만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상금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불교신문에서 태국 수해 피해 현장 기사를 접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박 양은 “내가 그냥 쓰는 것보다 더 크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수줍게 말했다.

박윤진 양은 지난 8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최한 제

지난 21일 성금을 보시한 박윤진 양(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본지 주간 장석준님이 팔만대장경 모형판본을 선물했다. 이 자리에는 박 양의 부모님도 함께 했다. 신재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오른쪽)이 11월23일 열린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출범식'에서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조직위원장 영조스님에게 대회를 전달하고 있다.

2012년 6월 여수...60여개국 1000여명 참석

WFB 한국대회 조직위 출범

TIP 세계불교도대회(WFB)

오는 2012년 6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WFB) 한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수 디오센터3층 벨라스타홀에서 '2012년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1990년 제17차 대회에 이어 한국에서는 2번째로 열리는 제26차 WFB 한국대회는 오는 2012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21세기의 불교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세계 60여개국 1000여 명과 내국인 10만 명이 참여하는 이번 한국대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생태환경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 평화 구현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2012년 5월12일부터 3개월 동안 여수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열리는 만큼 100여개국 800만명에게 한국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는 개최식에 이어 총회, 세계연등퍼레이드, 컨퍼런스, 세계불교비즈니스포럼, 아시아종교평화회의, 제17차 세계불교도청년대회(WFBY), 제9차 세계불교대학(WBU)회의, 영산제

1950년 5월 스리랑카에서 테라바다(상좌부), 마하야나(대승), 바즈라야나(티베트계열) 등 3대불교종파가 참여해 결성한 세계불교기구다. 불교의 3대 부파의 친목, 상호이해와 교류를 통해 불법수행, 부처님의 사상전파, 인류의 정신적 지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2년마다 대회를 열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수립해 각 나라에서 실현에 옮길 것을 결의하고 있다.

공연, 불교뮤지컬 '수륙재' 공연, 방생제, 지역사찰 순례 등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조직위원회 명예대회장을 맡았으며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회장, 조계종 호남 6본사연합회장 영조스님(송광사 주지)이 상임공동조직위원장을,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진옥스님이 집행위원장을, 영정호 광주전남불교사암연합회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소임을 각각 맡게 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에서 “조계종이 추진중인 자성과 해신 결사가 한국불교를 넘어 세계불교도들이 함께 실천하자”는 서원으로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박인택 기자

‘성철스님과 현실참여’를 말한다

문도회·본지, 탄신100주년 포럼

성철스님문도회(대표 천체스님)와 불교신문(사장 수불스님)이 주최하고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스님)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이 주관하는 4차 학술포럼이 오는 12월1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퇴옹성철과 종교의 현실 참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갈등의

시기 퇴옹성철의 현실 참여 문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이어 박희승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 ‘간화선의 현실 참여 문제’를, 김중인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연구원이 ‘현실 참여의 돈오돈수적 함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김호규 동국대 연구교수와 석길양 금강대 HK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염태규 기자

수행력·종단 지도력 ‘상징’

인환스님 등 원로 7명 대종사 법계 품수

수행력과 덕망을 겸비한 원로 스님들에게 종단 최고 법계(法階)인 대종사(大宗師) 법계가 품사됐다. 법전 조계종 종정예하는 지난 24일 해인총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원로의원 인환스님과 정관스님, 월탄스님, 암도스님, 덕충총림 방장 설정스님, 원로의원 종하스님, 근일스님 등 7명의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품사했다. 대종사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서 종단 위계 서열의 기본이다. 지난 2004년과 2008년 대종사 법계 품사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된 이번 법계 품사식을 통해 현재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종단의 원로 스님은 총 35명이다.

전국에 불어 닳던 기습한과 속에 가운뎃 거행된 이날 대종사 법계 품사식은 명종을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헌화, 서원, 법계증 및 가사 수여, 청법계, 법어, 발원문, 불자 봉정, 사홍서원, 폐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는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에게 대종사 법계증과 대종사 휘장이 부착된 25주 가사

를 내리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자(佛子)를 봉정하며 대종사 품수를 축하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법어에서 “여러분이 본래 갖추어 있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은 높고 낮음이 없고 법계(法階)의 차제(次第)도 없을 뿐 아니라 범성(凡聖)이 없다”면서 “특히 항상(向上)의 기틀을 갖춘 이는 성색(聲色)의 경계에 집착하거나 속박당하지 않고 안으로 범성을 분별하지 않는다. 진실로 임운자재(任運自在)하려면 어떤 틀에서도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종사 법계 품수자를 대표해 원로의원 인환스님은 서원문을 통해 “불조께서 부촉하신 정법안장을 조계의 정통법인으로 이어가고자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는 것은 명종을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헌화, 서원, 법계증 및 가사 수여, 청법계, 법어, 발원문, 불자 봉정, 사홍서원, 폐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는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에게 대종사 법계증과 대종사 휘장이 부착된 25주 가사

▶관련기사 3편

해인사=박인택 기자

“지장보살·노무현 정신 일치”

문재인, 재단 이사장 본지 인터뷰

내년도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본지가 만났다.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 24일 본지와와이드인터뷰에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겠다던 불교의 지장보살 정신은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념과 일치한다”며 “불교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열망을 결집해 복지국가의 이념을 현실정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이사장은 “한국인의 심성 속에는 불교라는 ‘DNA’가 들어있다고 할 만큼 불교는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이지만, 이를 보듬고 확산시키기 위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타종교에 비해 미미했다”며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불교가 의식의 전환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09

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국민적 추모열기를 주도해준 불교계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터뷰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공부를 했던 일화를 비롯한 불교와의 인연, 내년 총선과 대선에 관한 구상 등 1시간 넘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문재인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봉직했으며, 노 대통령 서거 이후 고인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을 설립했다. 현재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로 일하며 야권 대통합을 위해 뛰고 있다. 한편 본지와의 인터뷰는 문 이사장이 대표번호사로 일하고 있는 부산 제계동 법무법인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대담은 이성수 본지 편집국장이 맡았다.

▶2774호 상보 부산=장영섭 기자

지면안내

- 조계종 개안수복시대 태극 수해복구 헌정 총다영 기사 동행취재 6면
- 월1회 발행...영어로 보는 불교신문 ... 7면
- 불교신문이 만난 사람 김장실 '예술의 전당' 사장 9면



경전을 수지·독송·소장하면 무한한 공덕을 받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이 <불교경전총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불자라면 <불교경전총서> 1질은 소장해야 합니다.

불교경전총서 (전 22권) 완역

500질 한정판



※전 22권 정가 214,000원

01. 화엄경 김지체 역/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9,500원
03. 묘법연화경 현해스님 역/13,000원
04. 금강경 철호영 역/7,0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12,0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효성 역/10,000원
07.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9,500원
08. 범망경·지장경 이지 역/8,000원
09. 과거현재미래경 해원 역/10,000원
10. 백유경 현각 역/8,000원
11.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관음경 이지 역/7,0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8,500원
13. 아함경1 돈연 역/9,000원
14. 아함경2 돈연 역/9,000원
15. 법구경 석치현 역/9,000원
16. 숫타니파타 석치현 역/10,000원
17. 밀린다왕문경1 동봉 역/12,000원
18. 밀린다왕문경2 이미령 역/12,000원
19. 본생경1 이미령 역/12,000원
20. 본생경2 이미령 역/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7,000원
22. 해심밀경 묘주 역/10,000원



생생한 부처님 말씀을 읽자!